

순천시, 현안사업 해결 위해 국도비 확보에 잔걸음

노관규 시장·손점식 부시장, 전남도 방문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로 동부서주하고 있다.

손점식 순천시 부시장은 지난 25일 전남도를 방문해 2023년부터 10년간 3조원 규모로 추진할 초광역 남북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순천만 갯벌 힐링 치유센터 건립 등 순천시가 발굴해 건의한 국비 사업이 모두 반영되도록 건의했다.

또한 대통령의 호남지역 관심사항으로 순천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원도심 르네상스 정원 프로젝트 사업 990억 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 등 현안사업에 대해 전남도가 공동으로 정부예산 반영에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했다.

아울러 그동안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다 전남도로 전환된 황전·월등 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공사,

동천변 저류지 생활 숲 야간 경관 명소 조성 사업 등 62건 440억 원의 사업과 균특 추가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 사업부서와 예산담당관실을 일일이 들러 설명하고 지원 건의했다.

이에 앞서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19일 전남도를 방문해 김영록 지사 면담 후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도비 100억 원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정원박람회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앞으로 시장 이하 전 직원이 정부예산이 의결되는 12월까지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 방문해 현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일류 순천으로의 재도약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시 현안사업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유빈 기자

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결정

모든 시민 30만 원, 만 19세 이하 40만 원 추가

광양시는 4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오는 8월 30일~9월 29일 지급한다고 26일 시의회(의장 서영배)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지원금은 모든 시민 1인당 30만 원이며, 만 19세 이하(2002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는 40만 원을 추가해 70만 원을 지급한다.

총사업비는 575억여 원이며, 전액 시비로 마련한다.

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지급을 하는 한편, 그동안 코로나19로 학습·보육권 등 피해가 컸으나 지난 2년여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를 좀 더 두텁게 지원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의 명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급대상은 소득·나이·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7월 1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광양시민이며, 광양에 국내 체

류자로 등록된 외국인과 국내 거소지로 신고된 외국국적동포, 9월 29일까지 출생등록을 완료한 출생아도 포함된다.

지급수단은 광양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으로 병행 지급한다.

1인당 광양사랑상품권 25만 원, 온누리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하며, 만 19세 이하는 광양사랑상품권 55만 원과 온누리상품권 15만 원을 지급한다.

상품권 카드는 유희·사행성 업소,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을 제외한 지역 내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1인이 일괄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은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과 위임장(필요시)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 참전 유공자 배우자 유족 수당 지급

곡성군이 6.25전쟁, 월남전 참전 유공자 미망인에게 올해 6월부터 매월 5만원의 배우자 유족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전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존 자격이 승계되지 않았다. 따라서 참전 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명예수당 지급도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곡성군은 참전 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유족 예우를 위해 올해 4월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어 지난 5월부터 유족 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곡성군에 주소를 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미망인이다. 단 보존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신청 대상자는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배우자가 참전 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미망인 수당 지급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6.25전쟁 및 월남 참전 유공자의 미망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한다. 앞으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심선성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로 마련한 '청소년 댄스 스트리트'와 '싱어게인 여수'가 최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여수시 제공

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 '경연대회' 성료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로 마련한 '청소년 댄스 스트리트'와 '싱어게인 여수'가 최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박람회장 주무대에서 열린 '청소년 댄스 스트리트'에는 만 12세에서 18세까지 12개 팀이 참가해 그동안 같고 닮은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대상에는 9명의 팀원으로 구성된

UC팀이 선정돼 전라남도지사상과 함께 상금 100만 원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여수시장상과 상금 50만 원을 수상한 2위 팀(박민선)을 비롯해 총 6개 팀에 상장과 총 상금 220만 원이 수여됐다.

저녁 7시 진행된 '싱어게인 여수' 본선무대에는 15명이 진출해 불꽃 튀는 경연을 이어갔다.

상사화를 부른 박수지 참가자가

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여수시장상과 트로피, 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은상과 동상, 장려상, 인기상 수상자에게도 상장과 총 상금 220만 원이 수여됐다.

이날 본선 진출자는 지난 8일 치러진 예선에서 135명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바 있다.

/이유빈 기자

김순호 구례군수, 물놀이 사고 예방 총력

실과장 정책토론회서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 강조

구례군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물놀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집중적인 계도활동에 나선다.

김순호 군수는 지난 25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사고 방지 대책 수립 등 꼼꼼한 군정수행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군수는 휴가철 발생할 수 있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지시하고, 이어서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철저,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철저 등 적극적인 현안업무 추진을 주문했다.

구례군은 섬진강을 포함하여 수많은 계곡들이 있어 여름철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유

명한 관광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가 완화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여름 휴가철로 물놀이 즐기는 인파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구례군은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자 물놀이 안전요원 20명을 선발해 교육을 마치고 곳곳에 배치해 물놀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찰과 계도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읍면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1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시설을 정비할 완료했고, 8월 31일까지 외국유원지에서 피서객을 대상으로 무료 구명조끼 대여소를 운영한다.

/심간식 기자